

지역 소식통

김제,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영예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비만 예방 관리 사업과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2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영양관리 사업, 통합건강증진 사업, 방문건강 관리 사업 부문은 개인 표창의 영예도 안았다.

김제시는 금연, 음주폐해예방,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구강보건, 방문건강 관리, 여성·어린이 특화 9개 분야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목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추진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시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좋은 프로그램으로 응모하는 김제로 다가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카페 오후스와 업무협약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서정수)는 성인의 정신건강을 조기선별하고 조기개입하기 위해 지난 19일 카페 오후스(대표 이향정)와 마음행복카페 2호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음행복카페는 성인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카페를 마음행복카페로 선정하여 카페 이용자들이 자가 정신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정신장애의 조기발견과 정신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마음행복카페 오후스에서는 스이용자 대상의 정신건강 척도검사 실시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지속적인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활동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후스 이향정대표는 "사회적으로 올바른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저희 가게가 김제시에 보탬이 되어서 뿌듯하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규제개혁으로 주민 편익 높인다

완주, 혁신과제 공모전 결과 우수 제안 5건 선정

완주군이 규제개혁으로 주민 편익을 높이고 있다. 완주군은 지난 19일 2023년 규제개혁 위원회를 열고, 발목잡는 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과제 공모전에 출품한 우수 제안 5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전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행정규제

개선을 모색하고, 해소된 규제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청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15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 총 5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 최우수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 규제 개선'을 제안한 이승철 도로교통과 주무관이 차지했다.

이 주무관은 "차고지 자체의 부족, 제한적인 용지 활용 등으로 불법주차와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관련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수상은 '개발행위허가시 접속 도로 폭 완화'를 제안한 정경문 재난안전과 주무관이 선정됐다.

정 주무관은 관공능원, 숲경영체합림, 숲속아영장 등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도로확보기준 완화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모전과 함께 위원회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등록규제 30건에 대한 심사도 진행했다.

군은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안건은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이트 등을 활용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돼 나갈 예정이다.

조영식 완주 부군수는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은 지난 19일 2023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발목잡는 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과제 공모전'에 출품한 우수 제안 5개를 선정했다.



김제시가 '2023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주거복지대상' 지자체 성과평가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제, 주거복지 대전 '우수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주거복지 정책을 잘 수행한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됐다.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개최한 '2023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주거복지대상' 지자체 성과평가 결과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주거복지대전은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사업성과, 지역별특화 사례,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 지자체 특색을 반영한 노력을 중점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특히 시는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aT센터에 마련된 지자체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김제시 주거복지 사업설명과 더불어 김제시평선 쌀과 누룽지를 포함한 농산물과 귀농귀촌사업, 인구정책사업 등 김제시 우수 시책사업 등 홍보하여 참석자들에게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김제시의 주거복지 수준을 더욱 향상하는 계기로 삼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 대상자별 주거수요를 반영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지자체 평가 '대상'

전국 1위...특교세 2억 원 확보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김제시는 김제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과 시민의 소비지원 등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9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의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를 선정했으며 김제시는 전라북도 최초로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00년 11월 전북 최초로 발행을 시작한 김제사랑상품권은 누적발행액 3,919억원(11월 말 기준)으로 특히, 상품권 활성화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골목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의 가계 부담 감소를 위해 중점 추진되어 왔다. 이번 평가에서 김제시는 금년 5월부터 정부지침 적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



김제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기준 제한 및 월 구매한도가 축소되었지만페이백 이벤트 확대와 가맹점 집중 모집, 지정상품에 김제사랑카드 결제 연계 등 상품권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자금의 지역 내 소비를 지원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체크카드형 김제사랑카드 발행

으로 김제시 관내 택시요금 결제와 삼성페이 등록이 가능해졌고 김제사랑상품권 앱 고도화를 추진해 송금 기능, 잔액이동기능, 시정홍보 기능을 구현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노력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최고'

전북도 2023 지역건설업 활성화 평가 군 지역 1위

완주군이 지역 건설업체 수주량 확대와 건설자재의 지역생산물 우선구매 등에 적극 나서 전북도의 평가에서 군 지역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3년 연속 군지역 1위 자리를 지켰다. 완주군은 전북도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 지역건설업 활성화 평가'에 나선 결과 8개 군 지역 중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이번 평가에서 지역건설업체 수주량 증대,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연초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열어 지역 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직접 청취해 지역의 건설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 노력했다.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건설업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해 지역업체들의 법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 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매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 지평선중,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동참

김제시 성덕면에 위치한 지평선중학교(교장 조명규)가 20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 돕기 성금 500만원을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기탁해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지평선중학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희망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지난 2005년부터 성덕면 소재 주민 대상 연말 사랑의 연탄 봉사도 시행해 지역사랑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